

별의 도서관 탐험

호기심으로 떠나는 지식의 여행





깊은 숲 속에서 별의 도서관이 살며시 자리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부엉이 박사는 책장을 넘기며 속삭였어요. "다람아, 왜 비가 오는지 알아보고 싶니?"



다람쥐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알고 싶어요! 알아보고 싶어요!"
부엉이 박사는 미소를 머금고 책을 집었지요. 황금빛 작은 정령들이
반짝이며 나타났어요. 반짝, 반짝, 별빛처럼 반짝였어요.



책을 펼치자, 정령들이 춤추며 나타났어요. 부엉이 박사와 다람쥐는 빛의 길을 따라 책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리로 와요, 여기가 우리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정령들이 안내한 첫 번째 장소는 푸른 숲이었어요. 나무들은 속삭이듯 비가 내리는 시작을 알려주었지요. "비는 구름에서 시작된답니다," 정령들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구름이 모여요.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린다고," 다람쥐가 속삭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숲 속에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툭툭 떨어졌어요.



비로 젖어든 숲에는 은은한 향기가 가득했어요. 다람쥐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비는 나무를 자라게 하고, 우리의 친구예요!"
향긋한 비가 숲을 감싸고 있었어요.



숲 깊이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하늘이 점차 맑아졌어요. "비가
그치면 새 생명이 시작되네," 부엉이 박사가 속삭였어요. 새
꿈이 피어나요.



다람쥐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비는 우리의 친구였어요, 박사님." 그리고 작은 미소 속에서 지식의 씨앗이 싹트었습니다. 지혜가 자라요.

끝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세요.

별의 도서관 탐험

글·그림 올레길

© 2026 올레길 · Storypia